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고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물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보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각장애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열리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26일 노숙인 인권문화제

"노숙인 지원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숙인은 부랑인이 아닙니다."

11월 21일 열린 서울 노숙인인권문화제에 이어 26일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노숙인인권문화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종교사회복지연합회(회장 김광수, 이하 한중사협)가 주최하는 것으로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노숙인 문제를 다 함께 생각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중사협은 이번 행사의 뮤지컬,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해 노숙인들의 고통과 실상을 알리고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02)734-8643 김강진 기자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부다피아  
심영애 하동규  
남세영 이창환  
박미숙 서현숙  
조순금 서동원 서성원 등 185,430원  
총누적금액 44,247,480원

부산 불자 하나되어 "민수야 힘내"



많은 웃음의 민수. 아프다는 것 말고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장난꾸러기다. 민수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며 부산 대원정사 불자들이 12월4일 '새생명의 환희' 행사를 연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민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본지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민수(4)를 위해 부산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가 나섰다. 본지가 처음 민수 돕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뒤에서 묵묵히 후원의 손길을 전한 대원정사 불자들이 민수를 위해 두 팔을 걷은 것이다.

부산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 개원 1주년인 12월 4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 민수를 향한 나눔 손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행사의 이름은 '새 생명의 환희'. 대원정사는 이 행사에서 민수와 같은 소아암 환자들의 실태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새 생명의 환희'는 1부 행사인 '나누면 하나'와 2부 행사 '하나된 기쁨'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인 문을 여는 것을 타악 연주로 유명한 하유 스님의 법고소리가, 장중한 법고 소리 이후에는 통도사 어린이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정법 스님의 '수화무'가 펼쳐지면서 행사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1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다. 바로 민수 어머니의 발원문 낭독이다. 현재 투병중인 민수를 뒷바라지 하는 민수 어머니가 모든 소아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대원정사 측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2부 '하나된 기쁨'은 대원정사 푸른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아카펠라, 스님가수 지연 스님의 공연, 가수 추가열씨의 콘서트, 대동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민수돕기 모금함이 설치되며, 이는 행사가 끝난 즉시 개봉돼 민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대원정사 총신도회와 대원불교대학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다.

대원정사는 이미 올해 부처님오신날 '생명 등 달기'를 전개해 마련된 500만원을 민수에게 1차 치료비로 전달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본지의 민수돕기 모금에도 대원정사 신도들은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행사를 기획한 대원정사 김범준 법사는 "난치병 어린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돕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며 "앞으로 민수 이후에도 꾸준히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 사업을 벌

대원정사, 12월4일 모금 행사  
발원문 낭독·콘서트 등 열기로

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수는 11월 초순, 6차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암세포가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가 전했다. 민수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은 병이 나아서 병원을 떠나는 데 우리 아이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민수가 계속되는 약물치료에도 잘 견디고 있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051)583-7811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nia.com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nia.com/homepy/helminsu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항상 즐겁게 산다는 금화사 신도들. 나눔마을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기에 무료급식을 시행하면서도 즐겁다고 말한다.

나눔마을 봉사자 금화사 신도들

"무료급식 시작했어요"

서울 고덕동 시장골목에는 '나눔마을 무료급식소'가 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나눔을 실천하던 나눔마을대표이사 각원이 무료급식소를 열었다.

이제 급식을 시작하지 사흘째인 11월 16일, 급식 메뉴는 볶음밥에 최고 국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금화사 보살들이다.

사실 그동안 나눔마을을 지켜온 사 람은 박왕호 이사다. 그러나 박 이사 혼자 힘으로 무료급식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 항상 든든하게 옆을 지켜줬던 금화사(주지수) 신도들이 있었기에 나눔마을 무료급식소가 탄생할 수 있었다.

금화사 신도들은 2003년부터 박 이사를 돕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싸는 데 주부의 정성과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화사 보살들은 몇 해 동안 같이 해온 박왕호 이사와 허물없이 모든 살림을 공유한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살들도 박 이사도 나눔마을의 곳곳을 꼼꼼하게 챙긴다.

금화사 신도들이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화안어(和顔愛語)'라는 그림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한 금화사 주지수 스님이 이들에게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무료급식을 시작하기에는 수증 스님의 그림을 판매한 수익금이 큰 보탬이 됐다. 이렇게 인연 맺은 '나눔마을'을 찾은 금화사 보살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다. 봉사자들 사이도 친자매처럼 보일 정도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이차가 많다. 그럼에도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신행도 봉사도 항상 같이 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웃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금화사 보살들이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소신만큼은 확고하다. "절대로 빠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없어도' 봉사 활동은 곳곳이 나와야 해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이번 금화사 신도들에게 배우는 팁 한 가지. 봉사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주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봉사활동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봉사활동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난로·쌀 후원해 주세요

나눔마을이 무료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다. 어른들이 찾아와도 좁지 않 도록 난방기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금화사 신도들은 '후원자

가 좀 더 늘어나서 항상 쌀 등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어른들이 마음껏 식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2)429-1517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 세미나

-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

창립취지문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삶의 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 행보는 정신문화의 물결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각종 병폐를 낳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등 세부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현대사회는 발전과 변화의 표피적인 긍정성보다 혼돈과 가치 실종의 부정적인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결함은 곧 전체적인 부실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시대 흐름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선과 악, 앞서는 것과 뒤따르는 것, 도전과 응전, 진보와 보수,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왔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의 혼돈을 방지해 줄 수는 없다. 역사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요구와 그에 참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축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불교는 무엇인가? 이는 불자지성인들이 우리 사회와 불교계를 향해 던져야 할 가장 절절한 질문이다. 지성인들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교를 바르게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 변화를 명징하게 응시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삶도 최상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 지성인 스스로 불교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으로 불교를 바꾸려는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지혜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불자 지성인들의 사명이 있다. 불교라는 위대한 가르침과 사회라는 변화무쌍한 유기체를 날카로운 지성의 잣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혜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자 지성인들은 함께 모여 사회의 변화를 응시하며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드는 일에 소홀해 왔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 지성인들이 확고한 불제자로서의 신념과 명철한 지성의 사명감으로 만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혜안을 모으는 그릇이기를 발원한다. 많은 이슈를 내세워 요란하게 떠들기 보다는 우리 시대 공통의 화두를 엄선하여 깊게 논의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워 공허한 주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틀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와 사회' 포럼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이 없으며 방만하지 않고 추구하는 이념은 포괄적이며 신만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의 이 같은 발원은 사회의 변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틀릴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변화 속에서 진리를 잃어내고 진리를 원동력으로 인류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는 지성공동체의 결실을 거두 내는 뜻 깊은 여정이 될 것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이병래 김광삼 김규철 김용표 성태용 합장

- 일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 주최 : 불교와 사회 포럼 http://forum.buddhania.com

식 순

- 제 1부 : 창립선언 ● 개회사 ● 인사말씀 ● 창립 선언 ● 축사
- 제 2부 : 주제발표 및 논평 ● 사회 : 한형조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 제 1주제 : 불교와 현대사회 ● 제 2주제 : 불교와 정치 ● 제 3주제 : 불교와 경영
- 발표 : 조성택 교수 (고려대학교) ● 발표 : 박세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발표 : 노부호 교수 (서강대학교)
- 논평 : 김종욱 교수 (동국대학교) ● 논평 : 이각범 교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 논평 : 손기원 소장 (지혜경영연구소)
- 제 3부 : 토론 ● 진행 : 한형조 교수 ● 토론자 및 방식 : 청중 전체 자유토론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교·불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큰 발원 아래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담론의 장을 마련, 대안을 제시하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사회 각계의 불자 지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정기적인 포럼과 수시 포럼, 좌담회 혹은 각계인사 초청 토론회 등으로 활발한 토론 문화를 열어 갈 것입니다. 각계 계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원 가입 안내

- 정회원은... 불교와 사회 포럼의 정회원은 포럼 운영의 전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포럼 및 수시 포럼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주제적인 동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 불교와 사회 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모든 분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회 비 2006년부터 소정의 연회비 납부
- 정회원 특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계간 '불교평론'을 1년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불교평론 1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CD를 무료로 드립니다. 정회원에게는 본 포럼이 개최하는 조찬간담회 등 행사의 할인혜택(최대 50%)을 드립니다.
- 가입안내 불교와 사회 포럼 사무국 02)2004-8232~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구원 307호  
전자우편 : mian1@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forum.buddhania.com